

#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valuating the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Newly Married Couples

- Focusing o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석사 김선주\*\*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박정윤\*\*\*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Master Kim, Sunjoo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Park, Jeongyu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 연구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high-quality education programs for newly married couples. The subjects were 60 education programs for newly married couples that were performed by 30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in Seoul and the Gyeonggi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appropriatenes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n the basis of program plan, execution, and evalu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gram plans was no center that performed need survey. As for program advertisement, on-line, off-line, and person-to-person advertisements were used. Second, the education goals and contents were

\* 본 논문은 김선주의 2013년 석사학위의 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주저자 : 김선주(ksjphoto@naver.com)

\*\*\* 교신저자 : 박정윤(pjy4838@cau.ac.kr)

classified according to healthy family life, the essence of the marriage, gender equality, conflict management, problem prevention, relationship improvement, understanding of mutual similarities or differences, financial plan and management, and parenting. Each session lasted 2 hours, and the total number of program hours was 5 to 6 hours. The education methods were activities, lectures, and discussions.

Key Words : 신혼기 부부(newly married couple),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

## I. 서론

결혼은 성인 남녀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결합을 말한다. 가족생활주기의 첫 단계인 신혼기 부부들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불가피함으로 부부 상호간의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혼 신념 등으로 인해서 부부들은 결혼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우리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핵가족이 보편화됨에 따라 부부관계는 결혼생활 전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 유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가정외적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족생활교육에서도 부부교육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족문제 예방과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 가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주기별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예비부부·신혼기 부

부교육 프로그램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필수사업으로 지정하여, 결혼 전 단계에서부터 결혼초기의 부부 및 가족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가족해체 예방 및 가족의 안정성과 건강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예비부부·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은 2006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sup>1)</sup>에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시·군·구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예비부부·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인 가족문제 예방, 가족의 역량 강화, 통합적 접근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사업 중 하나이다. 본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사업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이나 방법이 사회변화나 참여자들의 변화와 욕구를 반영하는지 등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평가와 검토를 통해서 환경변화와 피교육자들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건강가정프로그램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예비부부·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

1) 현재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는 예비부부·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평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예비부부·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실행의 효율성,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혼기 부부의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계청(2012)보고에 따르면 조이혼율이 2003년에 3.4건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11년에 2.3건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과거 20-30년 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결혼 4년 미만 신혼기 부부의 이혼율이 전체 이혼율의 26.9%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이혼사유가 성격차이가 가장 많음을 고려할 때 신혼기 부부의 상호적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심각한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을 위한 성숙함이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신혼기 부부는 불안전하고 의존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며, 결혼의 현실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위기에 대해 부부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에 한계를 갖게 되면서 외부적 지원이나 전문적인 개입의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가족의 생활양식도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결혼생활을 지도할 지침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유은희·김득성, 2005). 과거와 달리 핵가족과 연애혼의 증가, 낮은 출산율, 고령화 추세 등으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혼기 부부의 결혼적응은 부부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되면서 최근에는 신혼기 부부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증을 낳고 있다. 즉, 신혼기는 새로운 하나의 가정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적응, 배우자의 가족과 새로운 관계에 대한 적응, 일상적인 생활 적응 등의 상이한 측면들에서 두 사람만의 고유한 공동 생활양식을 개발하고 적응하여

부부 쌍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더욱 중요한 시기로 등장하고 있다.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학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부부관계 교육프로그램들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 발달과업 변화에 주목하여, 맞춤형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홍숙, 2006; 심창교, 2008; 소병숙, 2009; 김숙기, 2010; 유옥, 2010; 이종대, 2012).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나타나는 부부 교육대상을 살펴본 결과 가족주기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주로 시행되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부부의 역할과 관계가 변화하고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 서로 다르므로 가족생활주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부부교육 프로그램 관련연구들은 프로그램 개발 또는 내용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부부 관계증진(김희진, 2004; 권수정, 2006; 이동숙, 2006; 이정미, 2006; 이주석, 2010), 의사소통 교육(이정숙, 2008; 유옥, 2010; 이종대, 2012), 갈등해결(문순희, 2009; 이잠숙, 2009; 김숙기, 2010) 등에서 프로그램 내용 개발이나 실시 후 효과성 검증 등에 치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진행되는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검토·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부부·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밝히고 보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 대상선정 및 모집, 프로그램 실시와 평가 등이 신혼기 부부가 수행해야할 발달과업에 부합되고, 새로운 가족생활에 대한 적응과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적절함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이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신혼기 부부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혼기 부부 특성과 발달과업

신혼기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만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새로운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 상호간의 애정표현과 대화, 갈등관리, 역할, 경제에 관한 규칙 등을 만들어가며 상호이해와 신뢰, 유대감 증진 노력을 해야 하고, 부부로서의 정체감 확립과 조정과 협력을 통해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혼기 부부들은 습관차이, 원가족의 문화차이와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진 것을 볼 때(이선미·전귀연, 2001; 천혜정·김양호, 2007; 통계청, 2012) 신혼기 부부들은 지금까지 부부 각자의 개인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공통적인 삶을 위한 일상생활 방식과 습관들에서부터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방식, 삶에 대한 가치관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생각이나 경험들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협상해 나가야 한다(Minuchin, Roseman & Baker,

1978).

즉, 신혼기는 부부가 자신의 가족을 떠나 결혼 전 독립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한 부부공동체로서 생활해야 하는 과도기적 생의 전환기이다. 그러므로 신혼기 부부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인 독립을 통해 새로운 관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전까지의 역할과는 다른 부부로서의 역할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신혼기는 부부관계뿐 아니라 부모됨의 준비, 일과 가족의 조화, 재정계획, 친족과의 관계 등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많은 과제가 있는 시기이다(유계숙 외 2003; 조성경·최연실, 2006). 신혼기 발달과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기 부부는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한 가정을 이끌어갈 주체로서 삶의 기반 확립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부부는 상호간의 정서적인 조화를 이루며, 경제적 측면의 단·장기적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만족하는 성적 적응 등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길러야 한다. 둘째, 결혼 후 시가와 처가의 인척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결혼생활에 중요한 요소로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충분한 교류시간을 갖고 배우자의 원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됨의 준비는 신혼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 신혼기 부부들은 자녀의 출산과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준비, 양육방식, 그리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위한 준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정현숙·유계숙, 2007). 넷째, 일과 가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평등한 성역할 의식을 갖고 공평한 역할분담과 역할공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혼기는 두 사람간의 정서적 적응에서부터 역할적응, 양가 집안에 대한 적응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함으로 부부는 위기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신혼기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고찰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신혼기는 부부교육의 필요와 효과성 모두가 높은 시기라고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호 적응과정에서 가족교육을 요구할 수 있고, 적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고, 결혼이 장기적 관계라고 하면 가족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김희진, 2004; 서선미, 2004; 유은희·김득성, 2005; 권수정, 2006; 마은주, 2010; 유옥, 2010; 박수선, 2013) 프로그램의 내용개발이나 효과성 검증을 주로 다루고 있다. 즉, 부부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 부부의 친밀감과 정서적 의사소통(박남숙, 2001), 상담모델을 적용하여 의사소통과 자아 존중감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적 요소들로 포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모의회, 2002) 연구로서 동일한 주제 내용이 다수이고 신혼기의 주기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반 부부교육의 내용과 대동소이 하였다.

김희진(2004)은 부부 의사소통, 갈등해결 방식, 부부의 성, 배우자 원가족과의 관계, 역할 분담 및 자녀양육 등으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실시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서선미(2004)는 Gottman의 부부치료 원리를 활용한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프로그램이 교육·상담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검증하지 못하였다.

유은희, 김득성(2005)은 신혼기 부부 적응 문제 및 부부관계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과 갈등

등해결 기술을 습득하여 친밀한 부부관계 형성을 돕고자하는 목적으로 PREP<sup>2)</sup>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부부에게 PREP 프로그램을 최초로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유옥(2010)은 신혼기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 증진을 목적으로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성만족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갈등 대처방식, 의사소통 만족도, 결혼 만족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박수선(2013)의 연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발된 예비부부·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실시한 결과 신혼기 부부와 예비부부들에게 효과성이 있음을 밝혔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이 신혼기 부부의 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내용이 효과가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는데 가족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외 프로그램 운영의 총체적인 평가를 통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선행연구들은 프로그램운영의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하지는 못한 채 프로그램 내용으로 참여자들의 변화를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성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내용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참여자,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수행과정 전반을 평가함으로써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의 다른 한편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연구들로서 소수이지만 이루어져왔다. 좋은 프로그램이 되려면 평가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2) PREP(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은 미국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으로 결혼 디스트레스 예방에 대한 최초의 연구(Gottman, Markman & Notarius, 1977)에서 시작되었다(유은희·김득성, 2005).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기준의 명확성, 내적 일관성, 포괄성 등이 포함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부부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김수현·최혜경, 2007; 김숙기·이경화, 2010)들은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표준화된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다.

김숙기, 이경화(2010)는 부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검정을 위한 부부관계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에서 부부관계를 7개의 하위요인(부부친밀감, 신뢰, 존중, 부부의사소통; 의사소통, 부부성생활, 성만족도, 원가족 관계; 정서적 단절, 가족투사, 배우자 가족관계; 시가/처가)으로 분류하여 평가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김수현, 최혜경(2007)은 부부교육 프로그램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개념적 틀 연구에서 부부교육 프로그램들이 전문성과 효과성을 갖고, 보편화·일반화되기 위한 객관성을 갖춘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틀’은 단계별로 양적·질적 측정을 위해 McLaughlin & Jordan(1998)의 투입과 활동을, Jacobs(1988)의 프로그램 장·단기 영향을 산출로 선정하였다. Parker의 참여자 만족도 및 태도의 변화는 프로그램의 장·단기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로서, Hughes(1997)의 맥락을 고려한 이론적 내용은 투입요소로서, 실행과정을 활동 요소로 선정하였다. 평가의 틀은 계획, 설계, 실행, 평가의 4단계로 그에 따른 지표와 문항을 개발하였다. 김수현, 최혜경(2007)의 연구는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된 평가도구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부교육 프로그램 평가연구들은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치중되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적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개발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및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적절성을 분석한다.
- 2)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효율성을 분석한다.
- 3)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효과성을 분석한다.

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경기도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이다. 자료 수집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자료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30개소에서 수행되었던 60개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각 센터 홈페이지로부터 수집하였다. 2차 자료는 1차 조사에서 수집된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한 후 미비한 부분을 해당 센터 실무자와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 2. 프로그램 분석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김수현, 최혜경(2007)이 개발한 평가 틀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부합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평가기준은 계획의 적절성, 실행의 효율성, 평가의 효과성을 선정하였고, 구체적으로 계획단계에서는 욕구와 마케팅을 실행단계에서는 교육목표, 내용, 방법 분석을, 평가단계는 양적·질적 평가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 선정된 재구

〈표 1〉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틀

단계	지표	세부 단계	문항내용	분석내용
계 획	적 절 성	육구 분석	참여자들의 요구 및 흥미, 조직의 요구, 지역사회 요구조사 실시 여부	프로그램 실시 전 요구도 조사 실시 여부
			요구와 흥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의 적절성	
		마케 팅	확인된 현재와 미래육구 반영정도	프로그램 요구도 내용
			현재 홍보, 광고의 참여자와 자원 제공자들 유인의 적절성	프로그램 홍보유형
			홍보, 광고 수단의 다양성, 적절성	프로그램 홍보방법 수, 유형
			홍보수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유무	프로그램 홍보평가 실시유무
	일반인들에게 프로그램의 적절한 홍보유무	프로그램 홍보방법 평가		
실 행	교육 목표	목표들과 조사된 요구와의 관련성	프로그램 요구도 내용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진술여부	프로그램 목표 서술 내용	
		장기적인 목표와 기반의 구체적 기술 여부		
		기관 부부교육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서술여부		
		목적 및 목표 진술의 현재 조건 반영 유무		
	교육 내용	문화와 사회계층 영향력 고려	프로그램 쌍 모집여부/ 총 교육생 수	
		정치, 경제 등 거시 사회적 영향력 고려		
		주제나 문제에 대한 실천 / 예방을 위한 자원동원 여부		
	교육 방법	주제, 활용절차, 시간계획의 적절성	실시요일과 시간	
		프로그램 내용의 흥미도, 기능성 여부	교수방법 수, 내용	
		다양한 학습방법의 적절한 활용성 여부		
		교육자 선발기준의 명확성과 적절성	쌍 모집 여부/교육생 수	
		교육자 및 교사를 위한 자체 훈련 실시유무	전문강사 교육 실시 유무	
		강의 장소의 적절성	외부, 내부시설 이용 유무, 외부시설 접근성 등	
공간과 장비의 실용적인 배치 상태유무				
교육자들의 성취도 정기적인 측정유무	회기별 평가여부			
평 가	효 과 성 질 적 측 정	자료 수집방법의 효율적인 신뢰성 정도	관련사업의 자료수집과 평가반영여부	
		프로그램 계획에서 평가계획의 마련여부	프로그램 평가 계획 제시여부	
		수집된 자료분석의 적절성과 결과의 익년도 반영여부	프로그램 피드백 여부	
		참여자에게 육구사정 과정의 결과 제공여부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여부	
		참여자 만족도 결과 제공여부	프로그램 만족도공개 여부	
		참여자에 관한 프로그램 효과성 유무	프로그램 만족도 실시여부	
평가도구 제공유무	프로그램 평가실시여부/방법			

출처: 김수현·최혜경(2007), ‘부부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틀’ 재구성.

〈표 2〉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실시여부

항 목	응 답	N(%)
요구도 조사유무	예	0( 0.0)
	아 니 오	60(100.0)

성된 틀은 가족학 전문가 3인으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 3. 자료 분석방법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평가의 각 단계별 기준에 의거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을 적용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문항내용을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계획 적절성 분석

#### 1) 욕구 분석

참가자들의 욕구조사에 대한 분석은 3 항목인데 ‘요구도 조사’, ‘피교육자 요구의 흥미에 대한 자료수집 분석기법’, ‘조사된 요구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 포함여부’가 그것이다. 첫째, 프로그램 실시 전 요구도 조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60개 프로그램 중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없었다. 일부 센터에서 비정기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가족욕구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신혼기 부부교육만을 위해서 해당 대상자에게 요구도 조사를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대체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계획 시 센터내부 실무자들이 선행 프로그램의 만족도 결과를 참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가족생활교육의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전 단계에서 교육참여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센터들은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기존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욕구조사를 통해 개발된 신혼기 매뉴얼을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자체에 의해 운영을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매 프로그램 단위의 욕구조사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위탁을 받은 시점, 또는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3년에서 5년 단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이용자 대상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센터 운영구조에서는 나머지 2 항목에 대한 요구도 조사는 실시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관련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2)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홍보는 4가지의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홍보유형, 홍보방법, 홍보평가 실시유무, 일반인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를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마케팅 평가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홍보유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홍보는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해당센터·해당시군구청 홈페이지 게시, 관련 사이트(혼수, 결혼업체 관련), E-뉴스레터가 있었다. 오프라인 홍보는 소식지, 잡지/신문(지역신문, 시군구청 신문, 구반상회보 등), 방송, 전화·면대면·문자 홍보, 지역 관내 홍보물 부착(유관기관 게시



〈표 3〉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홍보

항 목	영 역		N(%)
마케팅	온라인 홍보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60(100.0)
		해당센터 홈페이지	60(100.0)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60(100.0)
		혼수, 결혼업체 인터넷사이트	59(98.3)
		E-뉴스레터	60(100.0)
	오프라인 홍보	소식지	60(100.0)
		잡지/신문(지역신문, 구청신문, 회보 등)	60(100.0)
		방송	1( 1.7)
		전화홍보/면대면 홍보/ 문자홍보	57(95.0)
		지역 관내 홍보물 부착 (유관기관 게시대, 지역 아파트 등)	50(83.3)
		기타 (기업체 공문 등)	12(20.0)
홍보평가	예	51(85.0)	
	아니오	8(13.3)	
	무응답	1( 1.7)	

대, 지역 관내 아파트 등), 지역 관내 기업체 공문발송, 센터 외 교육장소 제공 기관의 자체홍보 등이 있었다. 온라인 홍보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90.0% 이상인 반면 오프라인 홍보는 온라인 홍보보다 비율이 낮았다. 센터별로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해당센터·해당시군구청 홈페이지 게시, 혼수, 결혼업체 등의 인터넷사이트, E-뉴스레터, 소식지, 신문/잡지, 전화·면대면·문자 홍보 방법 등을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지역 관내 홍보물 부착도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방송과 지역 관내 기업체 홍보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기업체 홍보는 교육대상자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기업홍보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홍보평가 실시유무를 살펴본 결과 홍보평가는 85.0%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13.3%만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보평가 방법은 프로그램 종결 후 실무자 회의를 통해 홍보방법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홍보에 대해서도 보다 구

체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서 차후에 비용이나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홍보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인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95% 가량이 전화·면대면·문자홍보를 실시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문자홍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비 부부·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은 젊은 층 대상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표적연령층을 고려한 홍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 2.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실행 효율성 분석

### 1) 교육목표

교육목표의 적절성 분석을 위해서 52개 프로그램의 목표 진술문을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9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교육목표의 9가지 영역은 ‘건강한 가족생활’, ‘결혼의 본질 이해’, ‘양성평등’, ‘갈등관리’, ‘문제예방’, ‘적응 및

〈표 4〉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1)

영역	N (%)
건강한 가족생활(건강한 결혼생활, 가정의 건강성, 가족의 안정성)	41(78.8)
결혼의 본질(결혼의 의미, 결혼관 정립) 이해	25(48.1)
양성평등	3( 5.8)
갈등관리(부부갈등해결, 의사소통)	14(26.9)
문제예방(부부문제예방, 가족문제예방)	7(13.5)
결혼초기 부부생활 적응, 부부관계 증진	26(50.0)
상호 유사성·차이점 이해	31(59.6)
재정계획 및 관리	3( 5.8)
부모됨	5( 9.6)

〈표 5〉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2)

분석 영역	교육목표 내용
장기적인 목표와 기반	- 건강한 가족생활(건강한 결혼생활, 가정의 건강성, 가족의 안정성) - 문제예방(부부문제예방, 가족문제예방)
기관 내 부부교육의 역할	- 결혼의 본질(결혼의 의미, 결혼관 정립) - 양성평등 - 갈등관리(부부갈등해결, 의사소통 기술) - 재정계획 및 관리 - 적응 및 관계증진(결혼초기 부부생활 적응, 부부관계 증진) - 부모됨
현재의 조건반영	- 상호 유사성·차이점 이해

관계증진’, ‘상호 유사성·차이점 이해’, ‘재정계획 및 관리’, ‘부모됨’이었다. ‘건강한 가족생활’ 이라는 목표 진술이 78.8%로 가장 많았고, ‘상호 유사성·차이점 이해’(59.6%), ‘적응 및 관계증진’(50.0%), ‘결혼의 본질’(48.1%), ‘갈등관리’(26.9%), ‘문제예방’(13.5%), ‘부모됨’(9.6%), ‘양성평등’과 ‘재정계획 및 관리’(각 5.8%) 순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교육목표는 건강가정 이념에는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신혼기 발달과업 측면인 부모됨, 갈등관리, 재정계획 등에 대한 목표설정이 관련 정보나 기술 습득, 인식개선 등의 서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사업인 만큼 발달과업을 고려한 구체화된 목표서술의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분류한 9개 교육목표 영역을 본 연구의 5가지 교육목표 서술의 적절성 평가 항목에 비추어보면

〈표 5〉와 같다. 제시된 9개 교육목표 영역을 요구도와 연계하여 목표 진술의 적절성을 파악해야 하나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없으므로 비교분석을 할 수 없었고, 교육목표가 결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진술되었는가를 분석한 결과 포괄적이고 모호한 목표 설정으로 명확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제시되었다.

또, ‘장기적인 목표와 기반이 구체화되어 있는 가’는 ‘건강한 가족생활’과 ‘부부나 가족문제 예방’을 포함하고 있어 잠재적·장기적 관점이 감안된 목표 진술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기관 내에서의 부부교육의 역할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가’는 ‘결혼의 본질’, ‘양성평등’, ‘갈등관리’, ‘적응 및 관계증진’, ‘재정계획 및 관리’, ‘부모됨’의 제시로 볼 때 부부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목적 및 목표 진술은 현재의 조건을 적절하게 반영하

〈표 6〉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교육내용(1)

영역	N (%)
가족에 대한 이해(가족의 기능, 생애주기별 가족발달과업)	12(20.0)
결혼관련 가치관(결혼의 중요성, 결혼문화, 저출산)	13(21.7)
양성평등한 성역할	12(20.0)
의사소통 기술	49(81.7)
갈등관리	23(38.3)
관계이해(건강한 부부관계, 친밀감 형성, 사랑의 의미와 유형)	18(30.0)
상호 유사성·차이점 이해	41(68.3)
친족관계 적응	9(15.0)
재정계획 및 관리	19(31.7)
성 적응	16(26.7)
부모됨(부모됨의 준비, 가족계획, 임신과 출산)	13(21.7)

고 있는가’는 ‘상호 유사성·차이점 이해’, ‘재정 계획 및 관리’, ‘결혼초기 부부생활 적응’ 등을 제시하여 교육대상자가 신혼기임을 반영한 교육 목표 진술이라고 보여진다.

## 2)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60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11개의 영역으로 분류한 결과 <표 6>과 같다. 11개의 영역은 ‘가족에 대한 이해’, ‘결혼관련 가치관’, ‘양성 평등한 성역할’, ‘의사소통 기술’, ‘갈등관리’, ‘관계에 대한 이해’, ‘상호 유사성·차이점 이해’, ‘친족관계적응’, ‘재정계획 및 관리’, ‘성적응’, ‘부모 됨’이었다. 영역별 분포를 볼 때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교육내용이 8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상호 유사성·차이점 이해’(68.3%), ‘갈등관리’(38.3%), ‘재정계획 및 관리’(31.7%), ‘관계에 대한 이해’(30.0%), ‘부부의 성’(26.7%), ‘결혼관련 가치관’, ‘부모됨’(각 21.7%), ‘가족에 대한 이해’, ‘양성평등한 성역할’(각 20.0%), ‘친족관계’(15.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센터별로 교육내용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기술’과 ‘상호 유사성·차이점 이해’의 비중은 높으나 그 외 영역은 상대적으로 교육내용에서 낮게 다루어지고 있어 ‘의

사소통과 부부 개인에 대한 이해’에 치중되어 있었다.

11개 영역으로 분류된 교육내용을 분석들에 비추어 분석해 보면 <표 7>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본 교육내용이 문화와 사회계층 영향력을 고려한 정도를 살펴볼 때 결혼의 중요성, 결혼문화, 저출산, 양성평등한 성역할, 일·가정 양립, 친족관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부부의 서로 다른 문화의 적응적 측면에서 문화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거시적 차원의 문화적 고려라고는 볼 수 없고, 사회계층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계층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내용이기보다는 사회적 이슈나 성별 문화차이 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교육내용의 내용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내용이 다른 거시 사회적 영향력의 고려정도를 살펴본 결과 저출산, 결혼중요성,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등으로 볼 때 최근의 가족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어 사회적 영향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교육내용이 주제나 문제에 대한 실천/예방을 위한 자원이 동원되었는가는 교육내용 전반이 신혼기 적응에 필요한 상호이해나 기술들을

<표 7>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교육내용(2)

영역	내 용
문화와 사회계층 영향력	- 결혼관련 가치관(결혼의 중요성, 결혼문화, 저출산) - 양성평등한 성역할(양성평등한 성역할, 일가정 양립) - 친족관계
정치, 경제, 거시 사회적 영향력	- 결혼관련 가치관(결혼의 중요성, 결혼문화, 저출산) - 양성평등한 성역할(양성평등한 성역할, 일가정 양립)
자원은 주제나 문제에 대한 실천/예방을 위한 것들을 첨부하였는가	- 상호 유사성·차이점 이해 - 관계에 대한 이해(건강한 부부관계, 친밀감, 사랑) - 결혼관련 가치관(결혼의 중요성, 결혼문화, 저출산) - 가족에 대한 이해(가족기능, 생애주기별 가족발달과업) - 양성평등한 성역할(양성평등한 성역할, 일·가정 양립) - 부모됨(부모됨의 준비, 가족계획, 임신과 출산) - 갈등관리 - 의사소통 기술 - 친족관계 - 재정계획 및 관리 - 성 적응

<표 8>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교육방법 : 교육기간 및 총 교육회기

항 목	내 용	N (%)	항 목	내 용	N (%)
교육기간 (주 1회기)	1 일	29(48.3)	총 교육회기	1 회 기	8(13.3)
	2 일	16(26.7)		2 회 기	8(13.3)
	3 일	5( 8.3)		3 회 기	18(30.0)
	4 일	5( 8.3)		4 회 기	20(33.3)
	5 일	3( 5.0)		5 회 기	3( 5.0)
	1박 2일	2( 3.3)		6 - 8 회기	3( 5.0)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교육방법

교육기간 및 총 교육회기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교육기간은 1일 일회성 29개 프로그램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주 1회씩 2일(26.7%), 주 1회씩 3일과 4일(각 8.3%), 주 1회씩 5일(5.0%), 1박2일(3.3%) 순으로 나타났다. 총 교육회기는 4회기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3회기(30.0%), 1회기와 2회기(각 13.3%), 5회기와 6-8회기(각 5.0%) 순이었다.

교육방법은 8가지 영역으로 분석가능한데, 첫째 회기별 교육시간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회기별 교육시간은 2시간 교육이 53.1%

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30분(32.6%), 2시간 30분(6.1%), 1시간(4.1%), 3시간과 4시간(각 2.0%) 순으로 나타났다. 총 교육시간은 5시간~6시간이 21.7%로 가장 많았으며, 7시간~8시간(20.0%), 2시간~3시간과 8시간이상(각 15.0%), 3시간~4시간과 4시간~5시간(각 10.0%), 6시간~7시간(8.3%) 순으로 나타났다.

회기별 교육시간이나 총 교육시간의 운영은 20-30대의 연령층과 직업을 가진 커플들을 유인하고자 하여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1박 2일이나 종일 교육은 제공기관의 편의성, 내용의 연속성 등으로 인한 것으로 실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교육실시 시간설정을 고민하는 것

〈표 9〉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교육방법 : 회기별 교육시간

항목	내용	N(%)	항목	내용	N(%)	항목	내용	N(%)	
회기별 교육 시간	1시간	2( 4.1)	총 교육 시간	2시간~3시간	9(15.0)	교육 실시 요일	평일	오 후	3( 5.0)
	1시간 30분	16(32.6)		3시간~4시간	6(10.0)		주말	저 녁	10(16.7)
	2시간	26(53.1)		4시간~5시간	6(10.0)			오 전	8(13.3)
	2시간 30분	3( 6.1)		5시간~6시간	13(21.7)			오 후	19(31.7)
	3시간	1( 2.0)		6시간~7시간	5( 8.3)			중 일	21(35.0)
	4시간	1( 2.0)		7시간~8시간	12(20.0)			1박2일	2( 3.3)
				8시간 이상	9(15.0)				

〈표 10〉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교육방법 : 교수방법

영역	내용	N (%)
교수방법	강 의	56(93.3)
	활동(성격·심리검사, 게임, 만들기, 이벤트 등)	59(98.3)
	토 론	40(66.7)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교육실시 요일 분포를 살펴보면 주말 중일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 오후(31.7%), 평일 저녁(16.7%), 주말 오전(13.3%), 평일 오후(5.0%), 1박2일(3.3%) 순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실시된 프로그램은 목요일이 가장 많았으며, 화요일과 수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이었다.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주 교육대상자는 20대~30대로 직장생활로 인하여 주로 늦은 오후 또는 주말교육이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되지만 향후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고안하여 주중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프로그램의 교수방법은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프로그램은 흥미 있고 기능적인가’와 ‘프로그램 설계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분석으로 교수방법 수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수방법은 활동(98.3%)이었고, 그 다음은 강의(93.3%)와 토론(66.7%)으로 나타났다. 활동으로는 성격·심리검사, 게임, 만들기, 이벤트 등으로 부부나 예

비부부에게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만들기 활동, 교육내용과 연관된 실습 등으로 활동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센터에서 본 교육 시에 2가지 이상의 교수방법을 사용하였고, 학습내용에 부합되는 활동(커플을 위한 도시락, 커플티 만들기 등)이 이루어졌고, 원가족과 커플의 상호이해를 위한 가계도 그리기와 성격유형검사 등은 교육 대상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에 적절하였다. 이에 반해 토론은 소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교육대상자 규모나 교육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교육시간 등의 물리적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빚어진 결과로 예측된다.

‘교육자 선발기준의 명확성과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해 커플 모집 여부와 교육생 수를 분석하였다(표 11 참조). 커플만을 대상으로 교육한 프로그램은 58.3%였고, 커플과 개별을 혼합하여 교육을 진행한 프로그램은 41.7%였다.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이 부부 모두에게 적응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쌍 단위의 프로그램

〈표 11〉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교육방법 : 교육대상

영역	내 용	N (%)	영역	내 용	N (%)
쌍모집 여부	예	35(58.3)	교육 대상 규모	10 이하	6(10.0)
	아 니 오	25(41.7)		11 - 15명 이하	1( 1.7)
결혼 연차별 모집 여부	예	23(38.3)		16 - 20명 이하	39(65.0)
	아 니 오	37(61.7)		21 - 25명 이하	2( 3.3)
교육장소	센터 내부시설 이용	44(73.3)		26 - 30명 이하	6(10.0)
	센터 외부시설 이용	16(26.7)		30명 이상	6(10.0)

〈표 12〉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평가 실시여부

영역	내 용	N (%)
회기별 평가	예	36(60.0)
	아 니 오	24(40.0)

운영을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또, 결혼연차별 대상모집여부를 살펴본 결과 23개(38.3%) 프로그램에서 결혼연차별 구분이 있었고, 나머지 37개(61.7%) 프로그램은 결혼연차별 구분 없이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결혼연차별 구분이 이루어진 23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결혼5년차 이내(34.8%)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결혼3년차 이내(30.4%), 결혼2년차 이내(21.7%), 결혼1년차 이내(8.7%), 결혼4년차 이내(4.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신혼기라 할지라도 결혼연차는 결혼생활의 경험과 기대, 문제 인식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능한 한 동질집단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대상 규모에 대해 살펴본 결과 15-20명 이하가 65.0%로 가장 많았으며, 10명 이하와 26-30명 이하(10.0%), 30명 이상(10.0%), 11-15명 이하(1.7%) 순이었다. 15명 내외의 비율이 높음을 감안할 때 활동이나 토론보다는 강의위주일 가능성이 높아 참여자의 흥미나 자발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됨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전체 교육자 및 교사 자체 훈련실시여부

를 살펴 본 결과 2009년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을 뿐, 실무자 교육만 실시하고 전문강사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 장소는 해당 센터 내 73.3%, 외부시설 26.7%로 나타나 교육이 외부 시설보다 해당 센터 내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부시설은 보건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지역 관내 유관기관, 리조트시설, 의료기관 문화센터, 교회, 학교 강의실 순이었다. 교육장소는 주로 센터 내 프로그램실이었고, 외부시설로는 학교 강의실이나 보건소 내 강당 등으로 교육이 용이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집중력있게 교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표 12>는 ‘교육자의 성취도 정기적 측정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회기별 평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회기별 평가가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36개 프로그램 60.0%로서 전체 프로그램에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를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 3.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평가 효과성 분석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양적·질적 평가 자료를 분석하였다(표 13 참조). ‘자료 수집방법의 효율적인 신뢰성 여부’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활동지, 진행사진, 체크리스트 등)의 수집여부 및 수집된 자료의 평가여부는 ‘아니오’(51.7%), ‘예’(46.7%)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이나 평가반영을 하지 않는 기관은 교육관련 모든 자료를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한 경우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든 자료를 수거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관하거나 필요한 자료만 복사 후 대상자에게 돌려주고 기관에서도 보관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진행사진, 활동지는 사업효과를 검증하는 평가 자료이기보다는 사업 수행 증빙자료에 불과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라고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수집된 자료는 적절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결

과가 계획과정에 다시 반영되고 있는가’의 분석을 위해 피드백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모든 기관에서 프로그램 평가의 결과를 다음 프로그램의 계획과정에 다시 반영하고 있어 익년도 사업을 보다 질 높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참여자 만족도 결과가 제공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상 대상자 교육참여 만족도 점수 공개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프로그램 종결 후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되는 시스템에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센터 홈페이지에는 대상자 만족도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정 참여자에 관한 프로그램 효과가 명백한가’는 사전 사후조사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나 본 조사에서 밝힐 수 없는 영역임으로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분석 결과 모든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만족도 설문지가 58개 프로그램(96.7%)에서 사용되었으며, 2개 프로그램(3.3%)에서 사전·사후검사가 사용되었다. 교육 참여자의 프로그램 사전·사후검사 실시여부는

〈표 13〉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평가(1)

영역	내용	N (%)	영역	내용	N (%)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여부 및 평가 반영 여부	예	28(46.7)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	예	60(100.0)
	아니오	31(51.7)		아니오	0(0.0)
프로그램 계획 시 평가 계획 마련 여부	예	60(100.0)	참여자 만족도 결과 제공 여부	예	0(0.0)
	아니오	0(0.0)		아니오	60(100.0)

〈표 14〉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평가(2)

영역	내용	N (%)
평가실시여부	예	60(100.0)
	아니오	0(0.0)
평가방법	만족도 설문지	58(96.7)
	사전사후검사지	2(3.3)
평가도구의 제공여부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자료	60(100.0)
	자체개발 제공자료	0(0.0)

단 1개 센터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프로그램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 설문지 평가방법 만으로는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가도구가 제공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자료 또는 자체 개발 제공자료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든 기관에서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작한 만족도 설문지를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신혼기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신혼기 부부교육의 효율성 있는 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 전반의 현황, 한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은 계획 단계에서 교육대상자의 요구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혼기의 발달과업이나 건강가정 요소 일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대체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제시한 매뉴얼을 토대로 지역 센터의 실정이나 교육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프로그램 계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교육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개인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임으로 참여자들에게 체감도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구도 조사는 참가자들이 원하는 것을 실제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임으로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계획 시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설계 일차적 단계에서 요구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사업의 홍보다양화를 통해서 잠재적 참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한 홍보는 실무자나 제공기관의 수월성에 비추어 한두 가지 방법에 치중되어 있고, 홍보실시 지역도 지역 관내 기업체, 교육 기관 등이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참여대상자를 제한시키고, 교육 참가자들에게 정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관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체 홍보의 경우 다양한 참여 대상자 확보 면에서 중요함으로 기업 홍보를 위한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홍보 방법에서도 기존의 홈페이지나 지역매체를 활용하는 정도에서 그치기보다는 프로그램 참여 가능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SNS, U-Tube, facebook 등과 같은 인터넷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실행의 효율성을 파악한 결과 제시된 교육 목표들은 그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표현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며, 예방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목표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음으로 인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실시 방법, 효과성 검증 등 프로그램 전반에서 지나치게 자율성으로 사업방향에 대한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의 지향점이나 방향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높음으로 교육대상과 내용을 포괄하면서 센터의 정체성과 목표에 부합되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 목표 진술이 되도록 하는 개선이 필



요하다.

교육내용은 교육 대상자의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대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부부교육 내용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기본적으로 부부 적응이나 관계 강화를 위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과 같은 공통적 측면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대상별이나 상황별, 시대별로 강조되는 이슈는 상이하다. 일반적 부부교육과 유사한 교육내용으로의 사업실행은 동일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른 부부교육과 중복성 문제와 해당주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영역의 교육내용에 치중됨으로 인해 가족주기 상 요구되는 발달과업 영역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신혼기 부부의 결혼생활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없게 할 수도 있음으로 차후에 교육내용의 검토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신혼기 발달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한다면 이후 단계에서 부부의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으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신혼기 교육내용을 잘 구성해야 한다.

교육방법은 센터별로 별다른 차이 없이 활동과 강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활동유형은 유사하게 나타나서 대상이나 센터별 특성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참여자들의 요구도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교육자의 역량이나 특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교육실시 방법은 교육의 효과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교육의 질과 참여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인대상의 교육임을 감안할 때 활동위주의 교육이 적절하지만 교육목표와 내용에 부합되는 활동인지의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향후에 활동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를 실시하여 대상별 적절한 교육방법

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회기별 교육시간이 1시간 30분~2시간으로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 실시되어졌다.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자는 주로 20대~30대의 직업을 가진 젊은 연령층으로 퇴근 후 늦은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어, 교육실시시간과 요일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대다수가 총 교육실시시간이 8시간미만, 주 1회씩 3일 미만, 3회기 미만의 단기성 교육으로 운영되어져 효율적인 내용 전달과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 낮고,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1일 교육이 참여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나 교육효과의 지속성의 장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회기와 기간에 대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모집된 교육대상은 커플과 개별 혼합으로 진행하였고, 신혼기 부부의 결혼연차를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커플과 개인 참여는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과 활동 등에서 차별화되어야 하며, 결혼 년차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교육집단의 이질성에 따라 교육목표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하고 산만해질 수 있다. 교육대상의 동질성과 규모는 교육의 집중도, 참여자의 흥미와 자발성 유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하는 적절한 대상선정이 요구된다.

셋째, 평가 효과성 분석을 통해 볼 때 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가 대부분 실시되지 않았고, 사업계획단계에서 요구도 조사 미실시, 교육목표 서술의 모호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명분상의 평가라고 한다면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요구하는 단위사업별 최소한의 만족도 평가 조사 정도라서 진정한

의미의 평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신혼기 교육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에 부합되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사업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이후에 반영하는 환류과정을 거치면서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시점에서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브랜드 사업으로서 정체성과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 평가단계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서울·경기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제한되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 센터의 동일사업 분석을 위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겠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동일 사업의 차이 분석도 필요하다. 둘째,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지표개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겠다.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효과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도구가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권수정(2006). ENRICH를 활용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결혼초기부부를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수현·최혜경(2007). 부부교육 프로그램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개념적 틀. 한국가족관계학 회지, 12(1), 191-236.
- 3) 김숙기(2010). 부부교육 프로그램이 부부갈등 해결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4) 김숙기·이경화(2010).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정을 위한 부부관계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 평생교육 HRD 연구, 6(1), 179-195.
- 5) 김희진(2004).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김홍숙(2006). 갈등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마은주(2010). 크리스찬 신혼부부의 결혼만족을 위한 프로그램효과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모의회(2002).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부부 적응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45-73.
- 9) 문순희(2009). 부부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가족치료와 기독교 영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박남숙(2001). 부부성장 집단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박수선(2013). 신혼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건강가정지원센터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85-98.
- 12) 서선미(2004). Gottman의 부부치료 원리들 활용한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소병숙(2009).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해결중심단기 가족치료 이론을 기초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심창교(2008). 노년기 부부성숙 프로그램 개

- 발: 개입연구 방법의 적용.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유계숙·천혜정·김양호·전길양(2003). 부부탐구. 서울 : 신정.
  - 16) 유옥(2010). 결혼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신혼기 부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유은희·김득성(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 23(1), 1-18.
  - 18) 이동숙(2006). 중년기 부부성장 집단 프로그램.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이선미·전귀연(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0.
  - 20) 이잠숙(2009). 중년기 부부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알 집단상담 모델을 중심으로.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1) 이정미(2006).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이정숙(2008). 결혼예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이종대(2012). 이마고 부부대화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4) 이주석(2010). ENRICH 검사를 활용한 부부성장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5) 정현숙·유계숙(2007). 가족관계. 서울 : 신정.
  - 26) 조성경·최연실(2006).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 특성과 갈등 및 상담 요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7-19.
  - 27) 천혜정·김양호(2007). 기혼자와 이혼자의 결혼 및 이혼과정 차이. 한국가족복지학, 12(3), 5-23.
  - 28) 통계청(2012). 2011년 이혼·혼인통계 결과.
  - 29) Hughes, R.Jr.(1997). A guide to evaluating the equality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life web sites. Retrieved from Retrieved. <http://www.hec.ohio-state.edu/familife/techno1/guide/standard.htm>
  - 30) Jacobs, F.H.(1988). The five-tiered approach to evaluation: Context and implementation. In H.B. Weiss & F.H. Jacobs(Eds.). *Evaluating family programs*.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 31) McLaughlin, J.A. & Jordan, G.B.(1998). Logic models: A tool for telling your program's performance story.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1, 191-197.
  - 32) Minuchin, S., Roseman, B.L. & Baker, L.(1978). *Psychosomatic families :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투 고 일 : 2013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7월 6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7월 29일